

완도군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 박차

도서 지역 식수난 해소·침수 예방 사업·LPG 배관망 확충 등

완도군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12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우선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난·재해 등에 적극 대응한다.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화·보급 광역 상수도 해저 관로 설치 사업과 금일, 군외 고금 지역을 대상으로 식수원 개발 사업, 보급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군내 리에 총 251억 원을 투입해 빗물받이, 하수 관로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면 완도읍은 상습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완도읍 9개 마을, 4000여 세대에 LPG를 공급 중이며, 아직 LPG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고금, 신지, 군외, 약산 지역에 총 139억 원을 투입

해 배관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공공 하수도가 운영되지 않는 7개 읍면, 10개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한다.

금일 방면만 운행 중이던 여객선 야간 운항을 노화, 소안 방면으로 확대한다.

향로 내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등(燈) 부표 설치로 시인성을 확보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매일 1회 야간 운항을 실시한다.

주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도 건립한다.

보길, 고금, 소안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으로 보길은 12월 중 완공되고 고금과 소안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일, 약산 지역에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노화, 소안, 보급 등 3개 읍면 청년들을 위해 70억 원을 투입해 장난감 도서관, 맘 카페, 요가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주민 생활 불편 및 건의 사항 등에 귀 기울이고자



신우철 완도군수가 보길도를 방문해 저류지 설치 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이동 군수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주민 자치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행정 서비스도 펼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진도서 민물낚시대회 군 10일 지산면 앵무리 일원

전라남도낚시협회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가 '보배섬' 진도에서 개최된다.

진도군은 오는 10일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검정쌀 농산물 주산단지'인 지산면 앵무리 수로 일원에서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낚시협회가 주최하고 진도군낚시협회가 주관하며, 전남도와 진도군, 전라남도체육회, 진도군체육회에서 후원한다.

낚시 방법은 바닥, 내림이며 자리 배정은 추첨으로 실시된다. 대상 어종은 붕어 15cm 이상으로 시상은 길이(cm)를 원칙으로 한다. 단, 떡붕어는 계속 시 5cm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상은 1위 상금 500만원과 상장·트로피, 2위 200만원, 3위 50만원이며, 6-10위에게 고급 지역 특산품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자연보호상과 연장자상, 부부상, 원거리상을 비롯 다양한 행운상이 주어지며, 참가 선수 전원에게 친환경쌀(10kg)과 점심 도시락이 무료로 제공된다.

참가자는 2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참가 문의와 접수는 진도군 관내 낚시점으로 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목포 유달산휴게소 매점 이권 때문에?

점용허가 기간 리모델링 하던 A씨, 공무원 고소 "점용 기간 만료 전 철거 계고·명예훼손" 주장 시 "민원 접수되면 검토 거쳐 원만히 해결할 것"

목포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법 위반사항이 지적된 가운데 실제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까지 발생해 반목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고소인은 공유재산이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빼앗기 위해 민원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포시가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공유재산은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유달산휴게소 매점(사진) 건물이다.

고소인 A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8월 매점 건물의 사용수익허가서를 받고 동년 10월경부터 공사(리모델링)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와 관련한 자체 운반레일 설치를 위한 부분의 점용을 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 직권을 남용, 점용 기간이 만료돼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 철거와 함께 계고장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점용 기간을 2022년 12월경까지로 합의한 다음 정당하게 점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계고장을 부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계고장 설치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들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계고장 설치 전 관련 공문서를 발송하고 마치 적법한 처분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 및 신의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위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을 이용해 고



소인으로부터 유달산매점 이권을 빼앗아 가려는, 이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으며 일련의 절차가 공문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구두상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립도서관서 미디어 창작하세요

스마트 K-도서관 조성...1인 미디어 촬영 장비 갖춰

해남군립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이 조성됐다.

해남군은 군립도서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5층 영상창작실에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15㎡ 규모의 최신 스튜디오 시설을 설치했다.

스마트 K-도서관은 각종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 영상촬영장비, 조명, 스피커학습시스템을 구비한 스튜디오로 만들어졌으며 해남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설치된 장비 테스트 등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나 뉴미디어 창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K-도서관 내 영상창작공간 조성 보도자료영상실.

군 관계자는 "도서관 기능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생산으로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스마트 K-도서관을 통해 창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스마트 가든'

진도군 청사 쾌적한 심터 변신

2~4층 '스마트 가든' 조성

진도군이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휴식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 가든은 식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수, 성장조절, 조명관리 등 식물 생육을 자동관리하는 실내정원이다.

공기 유해물질 저감과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정화효과가 탁월한 스킨답서스, 스노우사피어 등을 식재해 균정을 방문하는 군민들이 휴식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심터를 제공했다.

특히 제어시스템의 자동화로 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자연친화적 휴게공간인 스마트 가든에서 군민들이 바쁜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가든을 다른 공공기관과 교육시설 등에 조성해 군민들의 휴식·힐링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js7777@kwangju.co.kr



신안군, 서울 은평구와 자매결연 협약

자은도, 은평구 섬으로 공유 예정

신안군이 서울시 은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신안군은 지난 2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미경 은평구청장, 구·군의회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약은 상호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농산물 도농지원, 행정·문화·교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하였으며 신안군 자은도를 은평구의 섬으로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컬러마케팅과 그린마케팅, 아트마케팅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신안군과 문화·체육 향유의 기회가 가득한 신한류 열풍의 중심 문화예술 대표도시인 은평이 돈독한 자매의 정을 나누며 새로운 내일을 열어 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17개 자매도시에 관광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섬이 없는 지자체에 1004개의 섬 중 하나를 공유해주는 명예섬 공유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포상금 해남군, 과태료의 30% 지급

해남군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신고하여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단투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 해남군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포상금 누계는 1인당 월 10만원, 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꽂중·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만 5000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 휴식 또는 행사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6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15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투기 30만원 등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선정

불갑사관광지·불갑저수지 공원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영광군 불갑사관광지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는 총 17개 지자체 관광지점 41개소가 지원, 1차 신청자격 확인과 2차 서면심사,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평가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3차 심사를 거쳐 영광 불갑사관광지를 포함한 9개 지자체 2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영광군은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고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휠체어 동선 및 점자 안내판 설치, 경사로 개선, 이동 동선 개선,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불갑사와 불갑저수지수변공원이 이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iylee@